

홍길동전 내신 문제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설 조선국 세종도 시절의 훈 지상이 이시니 성은 홍이오 명은 피라. 디디 명문거족으로 쇼년 등과하여 벼슬이 니조판 서의 니르미, 물망이 도야의 웃듬이오, 충효 겸비하기로 일흠이 일국의 진동하더라. 일즉 두 아들을 두어시니, 일즉는 일흠이 인형이니 텅실 뉴시 쇼싱이오, 일즉는 일흠이 길동이니 시비 춘섬의 쇼싱이라.

[A] 선시의 공이 길동을 나흘 씨의 일몽을 어드니, 문득 ㉠ 뇌정벽벽이 진동하며 청룡이 슈염을 거스리고 공의게 향하여 다라들거늘, 놀나 씨다르니 일장춘몽이라. 심중의 디회하여 식각하되, ‘나 이제 룡몽을 어더시니 반드시 귀한 자식을 나흐리라’ 하고 즉시 니당으로 드러가니, 부인 뉴시 니러 맞거늘, 공이 혼언이 그 ㉡ 옥슈를 니겨운 정이 친압고져 하거늘, 부인이 정식 왈, “상공이 ㉢ 체위 존중하시거늘, 년쇼 경박조의 비루하물 핑코져 하시니 은 봉헝치 아니하리로쇼이다.” 하고, 언파의 손을 찢치고 나가거늘,

공이 가장 무류하여 분괴를 참지 못하고 외당의 나와 부인의 지식이 업스물 한탄하더니, 맛춤 시비 춘섬이 초를 올니기로 그 고요함을 인하여 춘섬을 잇글고 협실의 드러가 정이 친압하니, 이 씨 춘섬의 나히 십팔이라. 훈 번 몸을 허후 후로 문외의 나지 아니하고 타인을 취할 뜻이 업스니, 공이 괴특이 녀여 인하여 잉 을 삼아더니, 과연 그 달부터 티고 잇서 십삭만의 일기 옥동을 싱하니, 괴골이 비범하여 진짓 영웅 호걸의 괴상이라. 공이 일변 것거하나 부인의게 나지 못함을 한하더라.

길동이 점점 트라 팔 세 되미, 총명이 과인하여 훈아를 드르면 벅을 통하니 공이 더욱 이증하나, 근본 천성이라 길동이 미양 호부호형하면 문득 꾸지져 못하게 하니, 길동이 십 세 넘도록 감히 부형을 부르지 못하고, 비복 등이 ㉣ 천디 하물 각골통한하여 심스를 정치 못하더니, 추구월 망간을 당하미, 명월은 조요하고 청풍은 쇼슬하여 사람의 심회를 돕는지라.

[B] 길동이 셔당의셔 글을 넓다가 문득 ㉤ 서안을 밀치고 탄왈, “대장뷔 세상의 나미 공명을 본밧지 못하면, 찰아리 병법을 외와 대장년을 요하의 빗기 초고 동정서벌하여, 국가의 디공을 세우고 일흠을 만디의 빗니미 장부의 ㉥ 쾌신라. 나는 엇지하여 일신이 적막하고 부형이 이시되 호부호형을 못하니 심장이 터질지라. 엇지 통한치 아니리오.”

하고, 말을 맛츠며 쫄의 나려 검술을 공부하더니, 맛춤 공이 쫄 월식을 구경하다가 길동의 비회하를 보고 즉시 불너 문왈,

“네 무슴 홍이 이셔 야심토록 잠을 쯔지 아니하느냐?”

길동이 공경 디왈,

“쇼인이 맛춤 월식을 사랑하미여니와, 대개 하늘이 만물을 니시미 오직 사름이 귀하오나, 쇼인의게 니르러는 귀하오미 업스오니 엇지 사름이라 하오리잇가.”

공이 그 말을 짐작하나 짐짓 칙왈,

“네 무슴 말인고.”

길동이 지비 고왈,

“쇼인이 평싱 설운 바는, 대감 정기로 당당하온 남지 되여스오니 부싱모혹지은이 겁습거늘, 그 부친을 부친이라 못하옵고, 그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엇지 사름이라 하오리잇가.”

하고, 눈물을 흘려 단삼을 적시거늘, 공이 청파의 비록 측은하나 만일 그 뜻을 위로하면 모름이 방조할가 저어 크게 꾸지져 왈,

“지상이 천비 쇼싱이 비단 너뿐이 아니거든, 네 엇지 방조하미 이 곳흐뇨. 츠후 다시 이런 말이 이시면 안전의 용납지 못하리라.”

하니, 길동이 감이 일언을 고치 못하고 다만 ㉦ 복지유체 뿐이라. 공이 명하여 물너가라 하거늘, 길동이 침쇼로 도라와 슬허하를 마지 아이하더라.

길동이 본디 지기 과인하고 도량이 활달한지라.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밤이면 잠을 날우지 못하더니, 일일은 길동이 어미 침쇼의 가 울며 고왈,

“쇼지 모친으로 더부러 전싱 년분이 중하여 금세의 모지 되오니 은혜 망극하온지라. 그러나 쇼지의 팔지 괴박하여 천한 몸이 되오니 품은 한이 갑스온지라. 장뷔 세상의 처하미 남의 천디 바드미 불가하온지라. 쇼지 즈연 괴운을 억제치 못하여 모친 슬하를 떠나라 하오니, 복망 모친은 쇼즈를 녀녀치 마르시고 귀체를 보증하쇼셔.”

그 어미 청파의 디경 왈,

“지상이 천싱이 너뿐이 아니여든 엇지 험한 마음을 발하여 어미 간장을 스로난요.”

길동이 디왈,

“넛날 장충의 ㉧들 길산은 천싱이로되 십삼 세의 그 어미를 니별하고 운봉산의 드러가 도를 닷가 아름다운 일흠을 후세의 유전하여시니, 쇼지 그를 효측하여 세상을 버셔나려하오니, 모친은 안심하샤 후일을 기다리쇼셔. 건간 곡산모의 핑식을 보니 상공의 총을 날릴가 하여 우리 모즈를 원수갓치 아는지라. 큰화를 님을가 하옵느니 모친은 쇼즈 나가물 녀여치 마르쇼셔.”

하니, 그 어미 또한 슬퍼하더라.

원니 곡산모는 본디 곡산 기상으로 상공의 총 이 되어서니 일흠은 초난이라. 가장 교만 방조하여 제 심중의 불합하면 공이 참소하니, 이러므로 가증 폐단이 무수한 중, 저는 오히려 업고 춘섬은 길동을 나아 상공이 미양 귀히 녀이물 심중의 ㉠ 알양하여 업시하물 도모하더니, 일일은 흥계를 생각하고 무녀를 청하여 왈,

“나의 일신을 평안케 하문, 이 곳 길동을 업시기에 잇는지라. 만일 나의 쇼원을 날우면 그 은혜를 후히 갑흐리라.”

하니, 무녀 듯고 깃거 다왈,

“지금 흥인문 밧과 일등 관상네 이시니, 스람의 상을 한 번 보면 전후 길흥을 판단하느니, 이 스람을 청하여 쇼원을 주시 니르고, 상공이 천거하여 전후스를 본다시 고히면, 상공의 필연 디혹하샤 그 오히려 업시코져 하시리니, 그 씨를 타 여쳐 쳐하면 엇지 묘계 아니리잇고.”

초난이 디회하여 먼저 은조 오십 냥을 주며 상조를 청하여 오라 하니, 무녀 하직고 가니라.

잇튼날 공이 니당의 드러와 부인으로 더부러 길동의 비범하물 날크르며 다만 천심이물 한탄하고 정히 말슴하더니, 문득 한 녀지 드러와 당하의 문안하거늘, 공이 고이히 녀여 문왈,

“그디는 엇더한 녀지완디 무슨 일노 왔느뇨?”

그 녀지 왈,

“쇼인은 관상하기로 일습더니, 맞춤 상공 문하의 니르려나 니이다.”

공이 초연을 듯고 길동의 니스를 알고져 하여 즉시 불너 뵈니, 상네 이윅히 보다가 놀나며 왈,

“이 공조의 상을 보니 천고 영웅이오 일디 호걸이로되, 다만 지체 부족하오니 다른 염녀는 업슬가 하나이다.”

하고, 말을 니고져 하다가 ㉡ 쥬져하거늘, 공과 부인이 가 장 고히 녀여 문왈,

“무슨 말을 바른도로 니르라.”

상네 마지 못하여 좌우를 물니치고 왈,

“공조의 상을 보온즉, 흥중의 조화 무궁하고, 미간의 산천 정교 영농하오니, 진짓 왕후의 기사이라. 장성하면 장췌 ㉢ 멸문지화를 당하오리니, 상공은 살피소서.”

공이 청과의 경여 묵묵 반향의 모습을 정하고 왈,

“스람의 팔조는 도망키 어렵거니와 너는 이런 말을 누설치 말나.”

당부하고 약간 은조를 주어 보이니라. 초후로 공이 길동을 산정의 머물게 하고 일동일정을 엄숙히 살피니, 길동이 이를 당하미 더욱 설우물 이기지 못하나 홀 길 업서 육도삼악과 턴문 지리를 공부하더니, 공이 이 일을 알고 크게 근심하여 왈,

“이 놈이 본디 지죄 잇스미, 만일 범남한 의스를 두면 상녀의 말과 갓하리니 이를 장췌 엇지 하리오.”

하더라.

이 씨 초난이 무녀와 상조를 교통하여 공의 마음을 놀납게 하고, 길동을 업시코져 하여 천금을 바려 조식을 구하니 일흠은 특지라. 전후스를 주시 니르고 초난이 공고 고왈,

“일전 상녀 아는 일이 귀신갓트미, 길동의 일을 엇지 처치하시니니잇고. 천 도 놀납고 두려워하옵느니, 일즉 저를 업시할 만 갓지 못하리로쇼이다.”

공이 이 말을 듯고 눈섭을 찡긋여 왈,

“이 일은 니 장중의 잇스미 너는 번거이 구지 말나.”

하고 물리치나, 심시 조연 산난하여 밤이면 잠을 날우지 못하고 인하여 병이 된지라. 부인과 좌랑 인형이 크게 근심하여 아모리 혈 줄 모로더니, 초난이 고히 뵈셔다가 고왈,

01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와 사건의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작품 내부의 관찰자로서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대화와 행동 묘사를 배제하고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를 통해 사건의 긴박함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를 중심으로 자연물에 투사된 자아의 내면을 표출하고 있다.
- ⑤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몽유 구조를 취하여 인물의 욕망이 실현되는 과정을 환상적으로 그리고 있다.

0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흥 판서는 용몽을 얻은 후 부인 유씨에게 다가갔으나 거절당하자 외당으로 물러나 한탄하였다.
- ② 춘섬은 흥 판서와 정을 통한 후 다른 사람을 취할 뜻을 품지 않아 흥 판서의 잉첩이 되었다.
- ③ 길동은 여덟 살 때부터 총명이 뛰어나 하나를 들으면 백을 통할 정도로 비범한 재능을 보였다.
- ④ 흥 판서는 길동의 호부호형을 엄격히 금지하면서도 내심 길동의 재주를 아끼고 사랑하였다.
- ⑤ 초란은 길동이 흥 판서의 총애를 받는 것을 시기하여 무녀를 통해 길동의 상을 보게 하였다.

03

윗글에 나타난 '홍 판서'의 심리적 상태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식의 비범한 재능에 대한 자부심과 그로 인해 발생할 가문의 위협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다.
- ② 신분 질서를 타파하려는 길동의 의지를 긍정하면서도 사회적 비난을 의식하여 겉으로만 꾸짖고 있다.
- ③ 첩인 초란의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길동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며 가문의 평화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 ④ 부인 유씨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길동을 적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있다.
- ⑤ 관상쟁이의 예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길동을 제거하려는 초란의 계획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시대의 적서 차별은 단순한 가정 내의 갈등을 넘어 사회적 성취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폭력이었다. 서자들은 부친을 부친이라 부르지 못하는 정서적 소외감과 더불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추어도 국가의 핵심 요직에 나갈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 이러한 억압 속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대응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주어진 운명을 수용하고 내면의 울분을 삭이는 '순응형'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기존 질서에 균열을 내거나 새로운 공간을 찾아 떠나는 '저항형'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개인의 울분이 사회적 정의와 결합할 때 영웅적 서사로 확장되기도 한다.

- ① 길동이 '호부호형'을 하지 못해 '심장이 터질지라'라고 탄식하는 것은 정서적 소외감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군.
- ② 길동이 병법을 익혀 '대장인'을 차고 '동정서벌'하기를 꿈꾸는 것은 사회적 성취에 대한 강한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③ 홍 판서가 길동의 재능을 알면서도 '천비 소생'임을 강조하며 꾸짖는 것은 제도적 폭력을 내면화한 인물의 모습을 반영하는군.
- ④ 길동이 장충의 아들 길산을 언급하며 '어미 슬하를 떠나려'하는 것은 운명을 수용하고 울분을 삭이려는 순응형의 태도에 해당하겠군.
- ⑤ 초란이 길동을 '원수같이' 여기며 제거하려 하는 것은 적서 차별이라는 구조적 모순이 가정 내 인물 간의 극단적 갈등으로 변진 사례로 볼 수 있겠군.

05

윗글에서 설명하는 '호부호형(呼父呼兄)'의 맥락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길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천륜의 회복을 상징한다.
- ② 홍 판서에게는 가문의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통제해야 할 금기이다.
- ③ 길동의 비범한 재능이 사회적으로 공인받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자격 조건이다.
- ④ 비복들이 길동을 천대하는 근거가 되는 신분적 낙인을 제거하려는 시도이다.
- ⑤ 길동이 어머니 춘섬의 신분을 상승시켜 정실부인 유씨와 대등하게 만들려는 전략이다.

06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설(話說)'과 같은 상투적 문구를 사용하여 장면의 전환을 알리고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② '일장춘몽(一場春夢)'과 같은 고사성어를 활용하여 인물의 허무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압축하고 있다.
- ③ 자연 배경(명월, 청풍)의 묘사를 통해 인물의 쓸쓸한 내면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을 '옥동', '영웅 호걸의 기상' 등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비범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화에서 '하늘이 만물을 내시매'와 같은 보편적 원리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07

윗글에 등장하는 '부인 유씨'와 '초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씨는 홍 판서의 권위를 존중하여 그의 요구를 묵묵히 따르는 수동적 인물이다.
- ② 초란은 자신의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춘섬의 아들인 길동을 양자로 삼으려 노력하고 있다.
- ③ 유씨는 홍 판서의 경박한 행동을 꾸짖으며 유교적 예법을 중시하는 엄격한 면모를 보인다.
- ④ 초란은 홍 판서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 무녀를 불러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는 충성스러운 인물이다.
- ⑤ 유씨와 초란은 길동의 비범한 재능을 시기하여 그를 가문에서 축출하려는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

08

윗글의 사건 전개 과정을 고려할 때, '홍 판서'가 병을 얻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인 유씨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간 지속되어 심화된 화병 때문이다.
- ② 길동이 가출을 선언하며 어머니 춘섬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 ③ 초란이 매수한 상녀의 예언이 길동의 비범한 재능과 결합하여 가문의 파멸에 대한 공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 ④ 길동이 육도삼약과 천문지리를 공부하며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 ⑤ 무녀가 홍인문 밖의 관상쟁이를 데려와 홍 판서의 과거 잘못을 대중 앞에 폭로했기 때문이다.

09

윗글에서 '천생(賤生)'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과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선천적인 굴레를 의미한다.
- ② 길동에게는 자아실현을 가로막는 벽이자, 가출을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동인이다.
- ③ 홍 판서에게는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유교적 명분론의 근거가 된다.
- ④ 초란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길동을 제거하기 위해 활용하는 약점이 된다.
- ⑤ 춘섬에게는 아들 길동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세습하고 가문을 장악하려는 희망의 근거이다.

10

윗글에서 '길동'이 홍 판서와 대화할 때 사용하는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처지를 하늘의 섭리에 빗대어 정당화하며 상대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다.
- ② 과거의 선례를 인용하여 자신의 행동이 가문의 전통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논리적인 비유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④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어 요구를 관철하고 있다.
- 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며 자신의 불행이 주변 인물들의 투기 때문임을 폭로하고 있다.

11

윗글의 흐름에 따른 '길동'의 정서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신분에 대한 각골통한(刻骨痛恨) → 부형에 대한 원망과 반항 → 가문을 위한 희생 결심
- ② 호부호형을 못 하는 서러움 → 홍 판서의 꾸중으로 인한 복지유체(伏地流涕) → 가출을 통한 자아 개척 의지
- ③ 비복들의 천대에 대한 분노 →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안심 → 초란의 음모에 대한 복수심
- ④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부심 → 신분적 한계에 대한 체념 → 현실 안주를 통한 평화 유지
- ⑤ 가문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 → 홍 판서에 대한 그리움

12

윗글의 '초란'과 '무녀', '상녀'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란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 세력인 무녀를 끌어들이며 음모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② 무녀는 초란의 욕망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전환해 주는 조력자이자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③ 상녀는 초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홍 판서의 심리적 약점을 공략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 ④ 이들의 공모는 홍 판서로 하여금 길동의 재능을 가문의 축복이 아닌 재앙의 전조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 ⑤ 상녀는 홍 판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길동의 상이 영웅의 상임을 부정하며 흉측함만을 강조하였다.

13

〈보기〉는 그리스 비극의 '운명'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밑줄의 '홍 판서'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그리스 비극에서 주인공은 종종 신의 신탁이나 예언을 통해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미리 알게 된다. 이때 주인공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절하게 저항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예언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으로 받아들이고 절망하는 것이다. 역설적 이게도 예언을 피하려는 주인공의 모든 노력은 결국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경로를 완성하는 도구가 된다. 이를 '운명의 아이러니'라고 한다.

- ① 홍 판서가 상녀의 예언을 듣고도 '누설치 말라'고 당부한 것은 예언의 힘을 부정하고 현실적 대안을 찾으려는 저항의 일환이군.
- ② 홍 판서가 길동을 산정에 가두고 일동일정을 살피는 것은 예언된 '멸문지화'를 막으려는 처절한 노력의 구체적 발현이겠군.
- ③ 홍 판서가 병이 든 것은 예언을 피할 수 없는 절대적 힘으로 수용하고 자아를 포기해버린 비극적 주인공의 전형적인 모습이군.
- ④ 홍 판서가 초란의 제거 제안을 물리친 것은 예언의 실현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운명의 아이러니'를 극복하려는 의지적 행동이군.
- ⑤ 홍 판서가 길동의 재능을 근심하는 것은 예언이 실현될까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길동의 자아실현을 돕고 싶은 부성애가 앞서기 때문이군.

14

밑줄 친 ㉠~㉥의 문맥적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체나 신분에 따른 위신과 품위.
- ② ㉡: 사람을 낮잡아 보거나 하찮게 대접함.
- ③ ㉢: 마음이 시원하고 즐거운 일.
- ④ ㉣: 의기나 기운을 드높여 북돋움.
- ⑤ ㉤: 어떤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임.

1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태몽의 장엄함과 비범한 인물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 ② ㉡: 비유적 표현을 통해 부인의 손을 아름답게 묘사하며 홍 판서의 친밀감 표현을 돕고 있다.
- ③ ㉢: 인물의 구체적인 행동 묘사를 통해 내면의 답답함과 울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 인물의 굴복하는 태도를 묘사하여 신분 질서라는 거대한 벽 앞의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길동의 존재가 가문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홍길동전 내신 문제지 · 정답 및 해설

01 서술상 특징 분석

정답: ①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와 사건의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출제의도]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서술 방식인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① 윗글은 서술자가 인물들의 마음속(홍 판서의 근심, 초란의 앙심 등)과 사건의 전개(길동의 탄생, 초란의 음모)를 모두 알고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인물의 내면까지 직접 제시하고 있으므로 내부 관찰자가 아니다.
 ③ 윗글은 길동과 홍 판서, 초란과 무녀 등의 상세한 대화와 행동 묘사가 풍부하게 나타난다.
 ④ 공간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보다는 인물 간의 갈등과 사건의 인과관계가 중심이다.
 ⑤ 용몽(龍夢)이라는 꿈이 등장하지만, 전체 구조가 꿈속 이야기를 다루는 몽유 구조는 아니다.

02 내용의 세부적 이해

정답: ⑤ 초란은 길동이 홍 판서의 총애를 받는 것을 시기하여 무녀를 통해 길동의 상을 보게 하였다.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적인 사건 전개와 인물의 행동 동기를 정확히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⑤ 지문 중반부에서 초란이 무녀를 청하여 길동을 없앨 계책을 묻자, 무녀가 관상쟁이(상녀)를 청하여 홍 판서에게 천거하라는 묘안을 낸 것이다. 즉, 상녀를 통해 길동의 상을 보게 한 주체는 초란의 의뢰를 받은 무녀의 제안에 따른 결과이다.

[오답 풀이]

- ① 지문 초반부에서 홍 판서가 유씨에게 거절당하고 외당에서 부인의 지식 없음을 한탄하는 장면이 명시되어 있다.
 ② 춘섬이 몸을 허한 후 타인을 취할 뜻이 없음을 홍 판서가 기특하게 여겨 잉첩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③ '팔 세 되매, 총명이 과인하여 하나를 들으면 백을 통하니'라는 구절이 지문에 나타난다.
 ④ 홍 판서는 길동을 꾸짖으면서도 '더욱 애중하나' 혹은 '비범함을 일견으며' 등의 표현을 통해 아끼는 마음을 드러낸다.

03 인물의 심리 및 갈등

정답: ① 자식의 비범한 재능에 대한 자부심과 그로 인해 발생할 가문의 위협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출제의도]

홍 판서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복합적인 심리 변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① 홍 판서는 길동의 비범함을 '애중'하고 '기특'하게 여기지만, 관상쟁이로부터 '왕후의 기상'이며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크게 근심'하며 길동을 엄격히 감시하게 된다. 이는 부성애와 가문의 안위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오답 풀이]

- ② 홍 판서는 길동이 호부호형을 원할 때 '방자하다'며 꾸짖는 등 신분 질서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서 있다.
 ③ 초란의 투기를 잠재우려 하기보다, 관상쟁이의 예언으로 인한 실질적 위협(멸문지화) 때문에 길동을 멀리하는 것이다.
 ④ 유씨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길동의 '천생' 신분이라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고뇌하는 것이다.
 ⑤ 홍 판서는 초란의 제거 제안에 대해 '내 장중에 있으니 번거이 구지 말라'며 물리치고 있어 동조한다고 보기 어렵다.

04 [보기] 종합 감상

정답: ④ 길동이 장충의 아들 길산을 언급하며 '어미 슬하를 떠나려' 하는 것은 운명을 수용하고 울분을 삭이려는 순응형의 태도에 해당하겠군.

[출제의도]

비평적 관점을 제시한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의 인물과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④ 길동이 길산을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려' 하며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것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려는 '저항형' 혹은 '탈출형'의 태도이다. 울분을 삭이는 순응형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 ① '호부호형'의 금지는 가족 관계에서의 배제를 의미하며, 이는 심리적 고통과 소외감으로 직결된다.
 ② '대장인'과 '동정서별'은 무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 신분적 제약 때문에 차단된 성취 욕구를 상징한다.
 ③ 홍 판서는 길동을 사랑하면서도 사회적 신분 질서(제도적 폭력)를 우선시하여 길동을 억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⑤ 초란의 투기와 살해 음모는 서자인 길동이 가문의 후계 구도나 총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갈등의 산물이다.

05 시어·구절의 의미 분석

정답: ⑤ 길동이 어머니 춘섬의 신분을 상승시켜 정실부인 유씨와 대등하게 만들려는 전략이다.

[출제의도]

작품의 핵심 소재인 '호부호형'이 가지는 다층적인 의미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⑤ 길동이 호부호형을 갈망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인간적 권리를 찾으려는 것이지, 이를 통해 어머니의 신분을 정실부인과 대등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전략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혈연 관계의 본질적 회복을 의미한다.
 ② 홍 판서는 길동의 요구를 '방자하다'고 하며 금지함으로써 유교적 가통을 지키려 한다.
 ③ '대장부'로서 공명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가문 내에서의 지위가 확보되어야 함을 길동은 인지하고 있다.
 ④ '비복 등이 천대함'의 원인이 호부호형을 못 하는 처지에 있음을 길동이 '각골통한'하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

06 표현상 특징 분석

정답: ② '일장춘몽(一場春夢)'과 같은 고사성어를 활용하여 인물의 허무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압축하고 있다.

[출제의도]

지문에 사용된 고전 소설 특유의 표현 기법과 그 기능을 정확히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② 지문에서 '일장춘몽'은 홍 판서가 용몽을 꾸고 깨어난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쓰였다. 이는 꿈이 깨었음을 의미할 뿐, 홍 판서가 삶의 허무함을 느끼는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홍 판서는 오히려 꿈의 내용을 '대희(大喜)'하며 귀한 자식을 낳을 징조로 여겼다.

[오답 풀이]

- ① '화설'은 고전 소설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장면을 바꿀 때 쓰는 전형적인 서술어이다.
 ③ 길동이 서당에서 탄식하기 직전, 달 밝고 바람 부는 배경 묘사가 길동의 심회를 돕는 역할을 한다.
 ④ 길동의 탄생 장면에서 그의 외양과 기상을 직접 서술하여 비범함을 강조하고 있다.
 ⑤ 길동이 홍 판서에게 자신의 서러움을 호소할 때 인간의 귀함이라는 보편적 논리를 사용한다.

07 인물 관계 및 성격 분석

정답: ③ 유씨는 홍 판서의 경박한 행동을 꾸짖으며 유교적 예법을 중시하는 엄격한 면모를 보인다.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을 정확히 도출한다.

[정답 풀이]

- ③ 유씨는 홍 판서가 꿈 이야기를 하며 다가오자 '상공이 체위 존중하시거늘, 연소 경박자의 비루함을 행코저 하시니'라며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는 정실부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예법을 중시하는 성격을 보여준다.

[오답 풀이]

- ① 유씨는 홍 판서의 요구를 '불행치 아니하리로소이다'라며 거절하고 손을 떨치고 나가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인다.

- ② 초란은 길동을 양자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길동을 없애기' 위해 홍계를 꾸미고 있다.
 ④ 초란은 홍 판서의 병환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길동을 제거하기 위해 무녀와 상녀를 이용해 홍 판서를 불안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⑤ 유씨가 길동을 시기하거나 음모에 가담했다는 근거는 지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08 인과관계 추론

정답: ③ 초란이 매수한 상녀의 예언이 길동의 비범한 재능과 결합하여 가문의 파멸에 대한 공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출제의도]

지문 곳곳에 흩어진 복선과 사건의 인과관계를 통합하여 인물의 상태 변화 원인을 추론한다.

[정답 풀이]

- ③ 초란은 무녀와 상녀를 매수하여 길동이 '왕후의 기상'을 타고나 '멸문지화'를 부를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하게 했다. 평소 길동의 비범함을 알고 있던 홍 판서는 이 예언에 '경아(驚訝)'하고 '심사가 자연 산란'하여 결국 병이 든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유씨와의 갈등은 초반의 일시적 사건이며 병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② 길동의 가출 결심은 홍 판서가 병이 든 이후 혹은 그와 병행되는 사건이며, 병의 원인으로 지시되지 않았다.
 ④ 길동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범남한 의사'를 둘까 걱정은 했지만, 반역의 구체적 증거를 발견한 것은 아니다.
 ⑤ 상녀는 홍 판서의 과거를 폭로한 것이 아니라 길동의 미래(관상)를 예언하여 겁을 준 것이다.

09 소재의 상징적 의미

정답: ⑤ 춘섬에게는 아들 길동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세습하고 가문을 장악하려는 희망의 근거이다.

[출제의도]

'천생'이라는 핵심 개념이 각 인물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⑤ 춘섬은 길동의 '천생' 신분을 슬퍼하며, 길동이 집을 떠나겠다고 할 때 '어미 간장을 사르느냐'며 고통스러워한다. 이를 신분 세습이나 가문 장악의 도구로 여기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길동은 총명이 과인함에도 '근본 천생'이라 호부호형을 못 한다.
 ② 길동은 '천한 몸이 되오니 품은 한이 깊사온지라'라며 가출의 이유로 신분을 언급한다.
 ③ 홍 판서는 '재상이 천비 소생이 비단 너분이 아니거든'이라며 신분 질서를 강조한다.
 ④ 초란은 길동이 천생임에도 홍 판서의 총애를 받는 것을 시기하여 이를 제거의 명분으로 삼는다.

10 담화 방식 분석

정답: ③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논리적인 비유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출제의도]

인물의 대화 속에 나타난 수사적 전략과 태도를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③ 길동은 홍 판서에게 '공경 대왕'하며 예의를 갖추면서도, '하늘이 만물을 내시매 오직 사람이 귀하오나'라는 비유적 논리를 들어 사람이면서도 사람 대접(호부호형)을 받지 못하는 모순을 호소한다.

[오답 풀이]

- ① 하늘의 섭리를 인용하긴 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정당화'하기보다 '한탄'하는 쪽에 가깝다.
 ② 홍 판서와의 대화에서는 과거 선례 인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길산의 예는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등장)
 ④ 길동은 매우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압감을 주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⑤ 홍 판서 앞에서는 자신의 신분적 한계와 효도하지 못함을 슬퍼할 뿐, 초란의 투기를 언급하지 않는다.

11 인물의 정서 변화

정답: ② 호부호형을 못 하는 서러움 → 홍 판서의 꾸중으로 인한 복지유체(伏地流涕) → 가출을 통한 자아 개척 의지

[출제의도]

사건의 전개에 따라 인물이 겪는 심리적 궤적을 정확히 추적한다.

[정답 풀이]

- ② 길동은 처음에는 호부호형을 못 해 서러워하다가, 홍 판서에 게 호소한 후 엄한 꾸중을 듣고 엎드려 눈물을 흘린다(복지유체). 이후 밤잠을 못 이루다 어머니에게 가출을 선언하며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오답 풀이]

- ① 반항이라기보다 슬픔과 호소이며, 가문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한 떠남이다.
 ③ 초란의 음모를 알고 경계하긴 하지만, 지문 내에서 복수심이 구체적으로 표출되지는 않는다.
 ④ 길동은 신분적 한계에 대해 체념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뇌하며 결국 집을 떠나는 선택을 한다.
 ⑤ 두려움보다는 '기운을 억제치 못하여' 떠나려는 능동적 의지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12 사건의 통합적 이해

정답: ⑤ 상녀는 홍 판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길동의 상이 영웅의 상임을 부정하며 흥취함만을 강조하였다.

[출제의도]

악인들의 공모 과정과 그들이 사용한 기만 전략의 디테일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⑤ 상녀는 홍 판서 앞에서 길동의 상을 '천고 영웅이오 일대 호걸'이라며 오히려 치켜세웠다. 다만 그 비범함이 지나쳐 '왕

후의 기상'이므로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서 홍 판서를 더 큰 공포에 빠뜨린 것이다. 영웅의 상임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초란이 무녀를 청하여 길동을 없앨 방법을 묻는 장면에서 확인된다.
 ② 무녀가 상녀를 추천하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묘계)를 제시한다.
 ③ 상녀의 예언은 홍 판서가 평소 품고 있던 길동에 대한 불안감(천생의 재주)을 극대화했다.
 ④ 홍 판서가 예언을 듣고 '범남한 의사를 두면 상녀의 말과 같으리니'라며 근심하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

13 [보기] 외부 사례 비교

정답: ② 홍 판서가 길동을 산정에 가두고 일동일정을 살피는 것은 예언된 '멸문지화'를 막으려는 처절한 노력의 구체적 발현이겠군.

[출제의도]

외부의 비극 이론을 작품의 상황에 적용하여 인물의 행동 동기를 심층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② 홍 판서는 상녀로부터 길동이 가문을 망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이를 막기 위해 길동을 산정에 가두고 엄격히 감시(일동일정 살핌)한다. 이는 <보기>에서 말하는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저항'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누설치 말라고 한 것은 가문의 명예 실추를 막으려는 단속이지, 예언 자체를 부정하는 저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병이 든 것은 예언에 대한 공포와 근심 때문이지, 자아를 포기하거나 절망하여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는 아니다.
 ④ 초란의 제안을 물리친 것은 아직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 운명의 아이러니를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고도의 철학적 의지는 아니다.
 ⑤ 지문 후반부에서 홍 판서의 심리는 부성애보다는 가문의 안위에 대한 걱정(범남한 의사를 두면 어찌하리오)이 지배적이다.

14 어휘의 문맥적 의미

정답: ④ ㉞: 의기나 기운을 드높여 복돋움.

[출제의도]

고어 및 한자어의 문맥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④ ㉞ '양양(愴愴)하여'는 지문에서 초란이 길동을 귀히 여기는 홍 판서의 태도에 대해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품어'라는 의미로 쓰였다.
 ④ 번의 풀이는 '양양(昂揚)하다'의 의미로, 한자는 다르지만 음이 같은 단어를 이용한 함정이다.

[오답 풀이]

- ① ㉠ '체위'는 홍 판서의 높은 신분에 걸맞은 품위를 뜻한다.
 ② ㉡ '천대'는 서자인 길동이 종들에게 받는 멸시를 뜻한다.

- ③ ㉔ '꽤사'는 장부가 공명을 세우는 시원하고 기분 좋은 일을 뜻한다.
- ⑤ ㉕ '주저하거늘'은 상녀가 말을 꺼내려다 망설이는 상황을 뜻한다.

15 구절의 표현과 효과

정답: ⑤ 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길동의 존재가 가문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출제의도]

주요 구절에 사용된 표현 기법과 그 서사적 기능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⑤ ㉔ '떨문지화'는 가문이 멸망하는 재앙을 뜻한다. 이는 상녀가 흥 판서를 위협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길동의 존재를 '부정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낙인찍는 기능을 한다. 긍정적 영향력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문맥과 정반대된다.

[오답 풀이]

- ① 천둥소리(뇌정벽력)는 영웅 탄생의 전조를 알리는 전형적인 장치이다.
- ② '옥 같은 손(옥수)'은 정실부인에 대한 흥 판서의 애정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 ③ 책상(서안)을 밀치는 행위는 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큰 길동의 심적 고통을 보여준다.
- ④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아버지의 권위와 사회적 법도 앞에 선 길동의 한계를 보여준다.